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자유를 주시는 성령 성경: 이사야 61장 1-11절

Tag: 4차원의 영성, 4th dimension spiritual,

1 주 여호와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2 여호와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4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5 외인은 서서 너희 양 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6 오직 너희는 여호와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7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8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9 그들의 자손을 못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10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11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사61:1-11)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자유를 주셨다. 오직 그 자유를 방해하는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만 주의하라고 하셨다.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라 하셨다.

그러나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결과적으로 죄를 알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은 자유를 막아서는 죄악을 해결하기 원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결과를 대신 감당하는 것 외에는 완전한 방법은 없었다.

이것이 완전한 계시이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이 되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방법론으로 선택하신 것이 율법의 계시이다.

참 자유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거짓의 탈을 쓴 죄악이 물러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복음이 되셨다.

율법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도록 주신 것이

다.(119) 복음을 위한 율법인 셈이다.

율법이 주는 자유는 제한적이다. ‘요렇게는 안되고, 저렇게도 안되고 꼭 이렇게만 해야 한다’ 제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나 성령의 복음은 자유가 우선이다. ‘선악과만 먹지 마라’는 계명도 엄청나게 큰 개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자발적인 자유를 선포하는 계명이다.

1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이사야의 이 예언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루어졌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

가난한 자는 우리 인류를 뜻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들이며, 죄인들이며, 부족한 자들이다. 그런 자에게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셨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다음 말씀은 이 아름다운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위로가 필요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슬픈자 위로는 다음절에 나옴) 마음을 고치신다는 뜻이다. 복음으로(아름다운 소식) 그 마음을 고치신다는 뜻이다. 치료하신다. 수술하신다. 온전케 하신다는 뜻. 주의 말씀이 치유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신다는 뜻.

하나님께 덜 치유는 없다. 완전한 치유가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이루어진다.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포로 되었다는 것은 주권을 빼앗겼

다는 뜻. 무슨 이유에 의해서는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는 뜻.

모든 종류의 매임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실 것이다. 경제적 자유-부요함, 악한 생각으로부터의 자유-진리, 미숙하거나 돌발적인 행동으로부터의 자유-성숙, 모든 종류의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과거의 행실로부터의 자유를 주실 것이다.

-당신은 자유를 얻음으로 당신의 능력은 회복 될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간혀있다는 것은 묶여있는 상태를 말한다. 주권은 회복되었지만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묶여있는 상태를 말한다. 요즘은 스스로 간혀있는 경우도 많다. 안 간혀있을 때의 문화가 없는 경우가 가장 비참한 것.

농임을 선포하라! 저주를 끊으라!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라. 다시는 그 짐을지지 말라!

2 여호와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은혜의 해, 은혜의 때, 은혜의 계절. 시기에 관한 것.

-보복의 날, 승리의 날을 말함. 영적 전쟁을 선포하라.

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교회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Why?)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갈망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기쁨의 관을 주신다.

-재를 대신해서;재는 슬픔을 상징. 재에 앉았다는 것은 스스로 나라의 위중함과 큰 불행을 당하여 회개를 목적으로 재에 앉게 된다. 화관을 주신다는 것은 승리를 주신다는 의미이다. 교회에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아멘.

(그러나 요즘은 스스로의 암담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슬픔 가운데 앉는 경우도 많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쁨의 화관을 주시기 원하신다. 방법은 복음으로 인한 성령을 부어주시심이다.)

-근심이 있거든 찬송으로 대신하라. 찬송은 영적인 선전포고이며 영적 전쟁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이다. 아직은 큰 나무가 되지 못하고 묘목일수는 있을지라도 의의 나무란 작아도 의의 나무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무가 될 것인데 그 나무는 소나무가 아니라 의의 나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무이니 곧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나무이다. 누구든지 나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사람이다’ 라고 해야 한다.

4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
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 말씀은 오늘 북한에 이루어져야 할 계시적인 말씀이다.

중수한다는 것은 다시 쌓는다는 뜻이다.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그곳에 김일성 우상이 사라지고 성지가 회복될 것이다. 아멘. 의의 나무가 되어 그 곳을 중수해야 한다!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